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 승의목공예마을’ 기록					
구술자명	차기대	면담자	정지선			
면담장소	고려목공소	면담지원	허은영			
면담 일시	2022년 9월 27일	회차	2	시간	1시간 19분 41초	
자료번호	MichuholCA-08-00002041					
구술 개요	옛 도원동에는 양쪽으로 목공소가 있었음, ‘건설목공소’에서 근무할 때 주인 아주머니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남, 도원동이 헐리면서 승의동으로 이사 왔고 ‘고려목공소’ 상호를 사용함, 문틀과 문짝을 처음 배울 때 흠 파는 게 제일 힘들었음, 문틀, 문짝은 주로 나왕을 사용함, 접착제가 없을 때는 ‘아교’로 사용했음, 승의 목공예마을이 조성되어 좋고 앞으로 유지되길 바램, 문틀과 문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고싶은 마음.					
주요 색인어	항고, 도원동, 목공소, 목공예 마을, 건설목공소, 독립, 안주, 술, 결혼, 소성주, 막걸리, 미추홀공예사 사장님, 이름, 찬장, 대홍, 작업 시간, 용달차, 각골, 자동 채패, 세깅, 톱, 갓다날, 국산, 나왕, 미송, 홍송, 문틀, 문짝, 일본식 풍, 완자, 등미리, 칠, 본드, 아교, 톱밥, 손, 수령, 장인 할아버지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파일(비공개)	
1. 군대 시절 사용했던 항고에 대한 확인 작업				00:00:00~ 00:01:16	▷ 활동기획안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녹취문	
- 지난 인터뷰 내용 중 ‘항고’ 사진 확인 - 군대에서 밥 해 먹는 그릇.						
2. 도원동 생활 모습				00:02:10~ 00:12:01		
- 양쪽으로 목공소가 짝 있었음. - 건설목공소에 20년 동안 근무했었음. - 주인 아주머니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하였음. 이후 독립해서 일했음. - 도원 목공 거리 뒷골목에 있는 포장마차 이야기. - 72년도 월급이 6~7만 원 정도. - 도원동에 있다가 헐리면서 승의동으로 이사 옴.						
3. 미추홀공예사 사장님과의 인연						00:12:02~ 00:14:40
- 10년 정도 알고 지냈음. - 서로 일을 많이 하고, 4시쯤 술 한 잔도 하는 사이임.						
4. 고려 상호명 관련 이야기				00:14:40~ 00:17:00		
- 처음 독립했을 때 상호는 ‘대홍목공소’ . 이후 승의동으로 넘어와서 고려목공소로 바꿈.						

- ‘고려’ 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 정하게 되었음.		
5. 함께 일한 동료와 목공 작업 이야기, 대흥목공소 상호 이야기		
- 건설목공소에 일했을 때 여성 직원은 없었음. - 겨울에 일이 없으니 책상, 식탁 등 가구를 만들었음. - 문틀과 문짝을 처음 배울 때 홈 파는 게 제일 힘들었음. - 17살 때부터 목공소에서 일을 한 뒤 지금까지 하고 있음. - 대흥목공소 상호는 생각해서 나온 이름이었음. - 독립한 후 숨씨가 좋다는 소문이 나서 밤새 일한 적이 많음. - 아내가 여러 업무를 도와줬음.	00:17:01~ 00:30:09	
6. 기계 이야기		
- 간단한 연장은 세깡(톱), 각끌, 기계대패. - 홈 파는 기계는 갓다날. - 현재 사용하는 기계들은 40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 국산 기계임.	00:30:10~ 00:36:44	
7. 나무 이야기		
- 문틀, 문짝은 주로 나왕을 사용함. 지금 쓰는 건 미송(미국나무). 그다음은 홍송을 사용함. - 나무는 목재소에 주문하면 갖다 줌.	00:36:45~ 00:42:55	
8. 문짝 디자인 설명 및 변화상		
- 지금은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그려온 대로 해주고 있음. - 요새는 일본식 풍의 문짝을 많이 해감. - 문짝 관련 책을 보심.	00:42:56~ 00:51:42	
9. 도료와 접착제 이야기		
- 색칠은 공장으로 보냄. 예전에도 색깔 칠은 안 했음. - 접착제가 없을 때는 ‘아교’ 로 사용했음. 아교는 소가죽으로 만드는데.	00:51:43~ 00:59:04	
10. 폐자재 처리, 손 사진, 기억에 남는 손님, 현장 작업의 변화		
- 톱밥은 주변에 필요한 곳에서 가져가고 있음. - 일이 없으면 몸이 아픈 직업병이 있음. - 액자 만들어가는 손님이 돈을 항상 더 주셨음. - 옛날엔 문짝을 짜면 가서 직접 달아줬는데, 지금은 현장에 달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만들어주기만 하면 됨.	00:59:05~ 01:07:38	
11. 1차 인터뷰 보충		
- 군대 시절에는 타부대에서 나무를 수령해왔음. - 송의 목공예마을이 조성되어 좋고, 앞으로 유지되길 바람. - 문틀, 문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고싶은 마음.	01:07:40~ 01:19:41	